

박은지(MBC 기상캐스터)

1분30초를 위해 42.195km를 질주하는 과정에 있다

MBC 뉴스데스크 기상캐스터 박은지(27)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3년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특별상 수상, 2005년 일본 웨더뉴스와 KTF 웨더자키 1기로 일본에서 1년간 활동, 2006년 MBC 공채 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기상정보를 맡고 있다.

무한한 성장 속에서 그녀만의 개성 있는 예보 스타일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큰 키에서 나오는 힘 있는 워킹과 초콜릿 미소, 소품을 활용한 참신한 진행, 청량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정확한 예보 등 많은 준비와 다양한 시도가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I 일본행 티켓



패션쇼를 준비하는 디자이너 학생에게는 방송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무대의 뒤가 아닌 앞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고, 미인대회 참가 후, 방송에 대한 꿈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목표가 있는 20대에게 열정을 빼면 무엇이 남겠어요. 방송인을 준비하던 중에 일본 웨더뉴스에서 웨더자키 공채가 있었고, 그 기회를 살리고 싶었어요. 선발시험에 응시하면서 될 것 같다는 강한 자신감이 발동하더니 최종 면접을 통과해 웨더자키로 선발됐어요.”

박은지는 일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웨더뉴스에서 방송인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웨더뉴스에서는 웨더자키로 한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날씨정보를 알려주는 업무를 했어요. 모바일 폰을 통한 정보전달이라 뷰어 창이 작아 웨더자키가 움직임을 크게 하거나 눈에 쉽게 띄는 소품을 활용한 방송이 많았어요. 일본에서의 웨더자키 생활은 풍부한 경험을 주었고, 방송인을 향한 긴 항해에 세찬 바람이 되어 준 시간이었어요.”

I 전화벨이 울리면



기상캐스터는 기상청의 데이터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분석이 잘못돼 예보가 틀리는 날에는 방송국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린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시청자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뉴스를 시청하는 연령층이 40~50대로 일기예보도 그분들의 뒤통수죠. 그런데, 생계와 밀접한 농사나 일용직 근로, 난전의 장사 등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기예보에 더욱 민감하세요. 애타는 심정을 토로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공손하게 통화를 마쳐요.”

I 의상은 정보를 담고



봄비가 내린다. 동네 꼬마 녀석들의 노랑, 빨강의 우비와 장화, 우산이 골목을 점령했다. 비보다는 우비를 입고 뛰노는 아이들이 모습이 마음을 들뜨게 한다. 비오는 날에는 기상캐스터라면 어떤 옷을 입을까?

“기상캐스터의 의상은 날씨정보가 담긴 무언의 정보제공자예요. 그래서, 매일의 의상이 중요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죠. 비가 내릴 때를 대비에 옷장에는 항상 우비와 장화, 우산이 준비되어 있고요. 의상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만큼 따로 준비해 주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요. 평상시는 커리어 우먼의 느낌을 담아내는 콘셉트를 선호하지만,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는 상황에는 스타일리스트와 논의해서 준비해요.”

I 1분30초를 위한 42.195km



우리는 일상에서 1분30초 동안 무엇을 하는가? 신곡 미리듣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포털 클릭하기. 너무 쉽게 지나가는 찰나의 시간이다. 박은지 기상캐스터는 1분30초의 기상예보를 위해 시간대별로 기상청의 예보를 분석하고 원고를 작성한다. 마라톤을 달리 듯 오랜 시간 취재를 하고, 100m 출발선에 등장해 예보방송을 준비한다. 1분30초의 100m 전력질주를 위한 총성이 울린다.

“일기예보는 100m 육상선수가 최고의 순간을 위해 42.195km를 달리는 기분이라까요. 최고의 순간을 위한 끝없는 연습과 담금질이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기량으로 발휘되는 거죠. 그 담금질의 과정에서 차별화된 일기예보 스타일을 준비한다면 금상첨화죠.”



I 하늘을 담지 못하는 크로마키



사람들은 날씨가 궁금하면 창문을 열고 밖을 본다. 기상캐스터들도 시청자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하늘을 담기에는 방송사의 크로마키 세트장은 너무 답답한지도 모르겠다. 상암동에서는 시청자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크로마키 세트가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웨더자키시절 세트를 뛰어다니면서 날씨를 진행한 적도 있었어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캐스터들도 있지만, 날씨에 대한 중요도와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듯 기상예보 방송시설도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후지TV가 섬에 위치해 있는데, 기상예보를 하는 스튜디오가 건물 안에 있지만 밖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기상캐스터가 곧바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비 내리는 도심을 바라보며 현장감 있는 날씨정보를 알려줘요. 기상캐스터로서 야외에서 진행하는 예보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시도들을 보면 큰 자극이 되죠.”

I 계속되는 성장통



최근 기상캐스터들이 다양한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다재다능한 능력과 끼를 살려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박 캐스터는 어떤 미래상을 그리고 있을까?

“과정이 없으면 미래도 없듯이 목표를 향한 현재의 진행과정이 매우 소중한데요.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입사한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방송을 못하게 되는 꿈을 꾼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방송에 늦었다든지, 도로에 차가 막혀 방송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꿈을 말이죠. 저는 아직도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통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됐어요. 아픔이 지나고 목표에 한발 더 다가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아픔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맞이하는 준비는 현재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완성하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선배들도 주어진 과정을 잘 해쳐나갔기 때문에 성장한 것 같아요.”

I 로즈메리



‘다음’ 카페에 개설되어 있는 박은지 기상캐스터의 팬카페 로즈메리.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힘을 주는 팬들. 칭찬부터 더욱 발전하라는 따듯한 충고까지 깊은 사랑이 머무는 곳이다.

“항상 고마워요. 정말 소중한 것까지 신경써주고, 방송 모니터링에서부터 각종 자료들의 수집까지 정말 든든한 후원자죠. 팬이 준 선물 중에 소중한게 간직하는 것이 있어요. 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려준 제 초상화인데, 처음에는 사진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연필로 그린 거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항상 챙겨주는 마음에 감사해요.”



빨강의 열정과
주황의 따뜻함을 무기로,
노랑의 상큼한 매력을 발산하며,
초록의 젊음,
파랑과 남색의 냉정함,
보라의 감수성을 갖춘
무지갯빛 기상캐스터
(내일은 맑음, 2008, 187p)

I Love, Trust, Believe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해요. 친구들은 방송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
요. 방송인으로 주목받는 것이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주는 거죠. 요즘은 시간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을 먹
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휴식을 통해 활력을 충전하
고 내일을 준비하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
행도 하고 글도 써보고 싶어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밝
고 경쾌한 음악도 즐겨 들어요. 음악 중에 Daishi
Dance의 ‘Love, Trust, Believe’라는 곡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의 곡들이 좋더라고요. 기분을 업 시켜주는 쾌활
함이 살아있어요.”